

세계 최대 사진·영상 전시회 '포토키나' 5월 개최

27~30일 독일 쾰른... 콘퍼런스·이미징랩 등 부대행사 마련
캐논·소니·파나소닉·고프로 등 전 세계 대표 기업 대거 참가

격동의 시기를 맞은 사진·영상 업계의 흐름을 짚고 미래를 엿볼 전시회가 열린다. 세계 최대 사진·영상 전시회 '포토키나(photokina) 2020'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에는 캐논, 소니, 파나소닉, 코닥, 시그마, 탐론, 고프로, 칼자이스, 핫셀블라드, 인스타360 등 전 세계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한국에서는 삼양옵틱스, 오렌지몽키, 파오 등 6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개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바꾼 뒤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떠안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포토키나 2020에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할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미징 쾰른 비즈니스 포럼'을 업그레이드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미징 혁신 콘퍼런스(Imaging Innovation Conference)'에는 프로 사진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스테이지'와 영상 처리·제작과 스토리텔링, 유튜브 마케팅과 같은 영상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모션 스테이지'



등이 마련된다.

새로운 콘셉트의 이미징 기술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는 '이미징랩(IMAGING LAB)'에서는 스타트업, 혁신리더, 대학, 싱크탱크 등이 참여해 모바일·디지털 이미징,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미징 산업의 도전과제에 관해 논의한다.

또, '크리에이터 라운지'와 '렌탈 포인트'를 한 공간에 엮은 소통의 장도 열린다. 크리에이터 라운지에서 다양한 참가기업의 장비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렌탈 포인트에서 관심 있는 장비를 직접 시연해보고 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사진·영상 업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올리버 프레제(Oliver Frese) 쾰른메세 COO는 "전시회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일 변화를 자신했다.

독일 사진산업협회 카이 힐레브란트(Kai Hillebrandt) 의장은 "주최사들은 이번 전시회를 사진 영상 산업에 관한 대화의 장을 열 시작점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